

#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

2026. 4. 27

금 융 위 원 회  
금 융 감 독 원

## 목 차

I. 추진 배경 .....	1
II. 현황 및 문제점 .....	2
III. 개선방안 .....	4
1. 사잇돌대출 개선 .....	5
①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 개편 .....	5
②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 신설 .....	6
③ 사잇돌대출 취급기관 확대 .....	7
2. 민간중금리대출 개선 .....	8
① 민간중금리대출 금리 요건 개편 .....	8
② 민간중금리대출 1·2 분리 .....	9
③ 규제 인센티브 확대 .....	10
④ 중금리대출 관리체계 개선 .....	11
⑤ 온투업 연계투자 역할 강화 .....	12
IV.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 일정 (안) .....	13
① 기대효과 .....	13
② 향후 추진 일정 .....	15

## I. 추진 배경

- **중금리대출**은 신용대출 시장의 **금리단층**을 해소하고 중신용자\* 대상 자금 공급 기능을 회복하는데 **중요한 역할** 담당

\* 신용점수 하위 20~50%, '25.8월말 중신용자 신용대출 잔액 약 109.8조원

- 중신용자는 **신용이력 축적**을 통해 고신용자로 **상향이동**이 가능한 한편, **과도한 이자 부담**시 저신용자로 **하락할 위험**이 있는 계층
- 중신용자의 **신용도에 비례하는 적정금리**를 제공하여 **이자 부담을 완화**하는 것은 **대출시장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확보**에 필수적

- **재정으로 뒷받침**하는 정책서민금융으로 중신용자의 자금수요를 포괄하기 어려운 만큼,

- 일정 신용도 이상 차주에는 **민간 중심의 공급체계 구축이 중요**

- 정부는 **민간 주도**의 중금리대출 시장 안착을 위해 ①**마중물**(사잇돌대출) 공급과 ②**민간중금리** 대출 공급 지원을 병행

- ① (사잇돌대출, '16.7월~) 중금리대출 시장의 **마중물 역할**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이 손실을 일부 부담하는 **보증부 신용대출을 공급\***

\* 은행('16.7월)·상호금융('17.6월)의 사잇돌 I, 저축은행('16.9월)의 사잇돌 II로 구성

- ② (민간중금리대출, '16.9월~) 금융회사가 **자체 신용평가·재원**으로 공급하는 중금리대출로, **요건 충족시 규제 인센티브\***를 부여

\* 신용하위 50%에 일정 금리 이하로 공급하는 대출을 '민간중금리대출'로 포섭 → 민간중금리대출에 예대출 등 건전성·영업행위 규제 관련 인센티브 제공

- 그 결과 중금리시장은 **외형적으로 성장**하였으나, **중신용자 신용 위험**에 비례하는 **적정금리 형성**은 개선의 여지 존재

- 은행권과 제2금융권 간 **금리격차**가 여전히 크고, 중신용자에서 저신용자로 갈수록 **금리가 급격히 상승**하는 것에 기인

➔ **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진단하여, 중금리대출 시장의 안착을 뒷받침할 제도개선 추진**

## II. 현황 및 문제점

### 1. 중금리대출 시장의 양적 성장

- ◇ **사잇돌대출의 마중물 역할과 금융회사의 동참에 따라 중금리대출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**

- '16년부터 시작된 '**중금리대출 활성화**' 정책 이래 사잇돌대출을 마중물로 **중금리 시장의 규모 성장**('16년 1.32조원 → '25년 30.8조원)

< 중금리대출 공급 실적(신규취급액, 단위: 조원) >

구분	'16	'17	'18	'19	'20
사잇돌	0.37	1.41	2.60	2.16	1.99
민간 중금리	0.95	2.78	4.16	6.20	11.61
합계	1.32	4.19	6.76	8.36	13.59

- **민간중금리 시장**은 제2금융권(저은·상호·여전) 중심으로 성장하여, **중·저신용자의 금융 애로**를 해소하는 **본연의 역할**을 충실히 수행

< 민간중금리대출 공급 실적(신규취급액, 단위: 조원) >

구분	'16	'17	'18	'19
공급액 합계	0.95	2.78	4.16	6.20
은행	0.09	0.40	0.32	0.21
저축은행	0.48	0.89	1.80	4.40
상호금융	-	0.16	0.13	0.16
여전업권	0.38	1.33	1.91	1.43

- 전체 신용대출에서 **중·저신용자의 비중**이 증가하는 등 **중금리대출은 중·저신용자 금융공급의 촉매제**로서의 역할 수행

< 신용평점별 대출잔액 추이('25.8월, 단위: 조원, %, %p) >

구분		'21 (A)	'22	'23
고신용	잔액	197.0	177.2	167.2
	(비중)	(52.4)	(48.7)	(47.9)
중신용	잔액	95.5	100.7	100.5
	(비중)	(25.4)	(27.7)	(28.8)
저신용	잔액	83.8	85.8	81.5
	(비중)	(22.3)	(23.6)	(23.3)

※ (저신용) 신용 하위 20% (중신용) 신용 하위 20~50% (고신용) 신용 상위 50%

## 2. 금리 단층 현상 완화에도 불구하고, 개선의 여지 존재

◇ 중금리시장 조성(Market Building)으로 금리 단층이 다소 완화되었으나, 여전히 금리 단층을 개선할 여지 존재

□ 그간 정부의 중금리시장 조성·금리 단층 해소 노력으로, 업권간 금리 차이가 축소\*되는 등 금리 단층 현상이 상당히 개선

\* 은행-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 차이(잔액 기준, %p):  
(‘16) 20.1 → (‘19) 15.4 → (‘22) 9.1 → (‘25) 9.7 (‘16년 비 금리차 △10.4 감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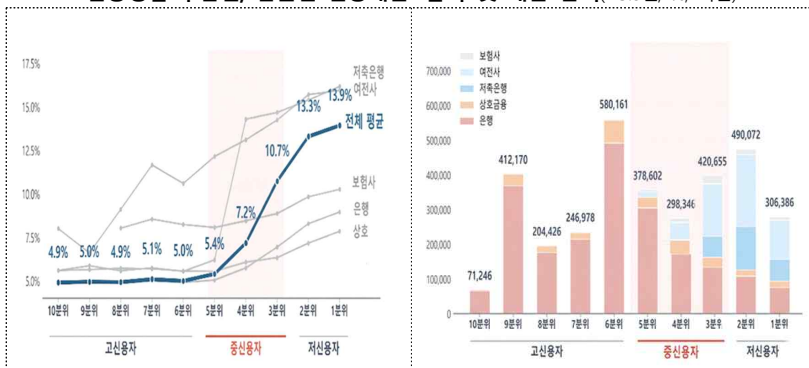
□ 그러나, 중신용자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5.4~10.7%로, 은행을 이용하는 고신용자보다 여전히 높은 상황(최대 2배)

○ 이는 제2금융권 금리가 구조적으로 높은 상황\*에서, 중신용자의 2금융권 이용이 증가하여 평균금리가 급격히 상승함에 기인\*\*

\* 높은 대출원가, 신용평가 역량부족, 한도에 민감한 차주 특성 등에 기인  
\*\* 전체 대출 비 제2금융권 비중(%): (고신용) 0.5 → (중신용) 25.6 → (저신용) 63.9

⇒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중신용자가 실제 신용위험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

< 신용평점 구간별, 업권별 신용대출\* 금리 및 대출 잔액(‘25.8월, %, 억원) >



\* 순수 신용대출, 카드론, 현금서비스 등 포함

## III. 개선 방안

< 기본 방향 >

중신용자에 더 낮은 금리로,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  
지속 가능한 중금리대출 공급 체계 구축

추진 방안	세부 추진과제
사잇돌대출 개선	◇ 사잇돌대출 상품 재설계 및 채널 확대
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 개선</li> <li>2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 신설</li> <li>3 사잇돌대출 취급기관 확대</li> </ol>
민간중금리대출 제도 개선	◇ 민간중금리대출 유인체계 개편
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 민간중금리대출 금리 요건 합리화</li> <li>2 민간중금리대출 1·2 분리</li> <li>3 규제 인센티브 확대</li> <li>4 중금리대출 관리 체계 개선</li> <li>5 온투업 연계대출 역할 강화</li> </ol>

< 기대 효과 >

(※ p.13 참조)

- ◇ 재정과 민간의 조화로운 역할 분담, 중금리대출 상품 구조 다변화와 금리 인하로 끊임없는 금리 사다리 형성
- ◇ '26년 중금리대출 31.9조원 공급(+1.1조원) 최대 5.20%p 금리 인하

## 1. 사잇돌대출 개선

### 1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 개선

◇ 적격 공급요건을 중신용자(신용하위 20~50%) 중심으로 재편  
 ⇒ '26년 **최대1천억원 공급 확대**, 보험료율 **최대5.2%p 인하**

#### 1. 현황 및 문제점

- 당초 사잇돌대출은 **순수민간상품**으로서 **중신용자 대상**(신용등급 4~7등급)으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,
  - 저신용자 대상 공급이 **확대\***되면서 **중신용자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**,
  - \* '22~'25년 사잇돌대출 공급 비중: (중신용자) 48.4% vs. (저신용자) 41.3%
  - 재정지원과 민간공급의 **역할 구분**이 다소 **불명확**해진 측면

#### 2. 개선 방안

- '**중금리대출 마중물**'이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,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을 '**신용 하위 20~50%에 70% 이상 공급**'으로 개편
  - ⇒ **재정 지원 없는 민간 보증부대출인 사잇돌대출은 중신용자에 더 낮은 금리\***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는데 집중
  - \* 사잇돌 I 금리 7.3~14.5% → **예상7.14~9.3%** (보험료율 **예상최대 △5.2%p ↓**), 사잇돌 II 금리 11.1~17.2% → **예상11.2~14.6%** (보험료율 **예상최대 △2.6%p ↓**)
  - ⇒ **저신용층은 재정 지원·금융기관 출연에 기반한 정책서민금융**으로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자금\*을 공급
  - \* '26년중 정책서민금융 총 12조원 공급 목표, 햇살론 금리 15.9→12.5%로 인하

< 적격 공급요건 개선 방안 >

구분	최초('16.7월~)	'22.1월~	현행 ('25.4.29일~)	개선
적격 요건	·4~7등급 중심	·신용 하위 30%에 70% 이상	·신용 하위 50%에 70% 이상	·신용 하위 20~50%에 70% 이상
도입 취지	·중신용자 자금공급	·고신용자 쏠림 완화	·저신용자 쏠림 완화	·중신용자 공급 집중 (본연의 역할 회복)
효과	·중금리시장의 마중물 역할	·하위 30% 비중 확대	·중신용자 비중 확대	· <b>최대1,000억원 공급 확대</b> · <b>보험료율 최대5.2%p 인하</b>

## 2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 신설

◇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 신설 ⇨ 중신용 개인사업자에 적정 금리 제공 **한도 확대**(+1천만원)로 **최대1,500억원**(+500억원) **공급**

#### 1. 현황 및 문제점

- 개인사업자(사업소득자)를 **일반 개인**(근로·연금소득자)과 유사한 항목으로 신용도를 심사\*
  - \* 개인사업자도 주민등록번호 기반 정보(소득, 연체이력 등) 위주로 심사 → 업력·매출·상거래정보 등 사업자 특화 정보 활용 불가
- **성장성·안정성이 있는 개인사업자도 대출에서 배제**되거나 **낮은 한도\***를 받게 되어 개인사업자 대상 사잇돌 공급이 위축\*\*
  - \* 개인정보만으로는 사업체의 성장성·안정성 선별이 어려운 상황 →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개인사업자에 상대적으로 낮은 한도 제공
  - \*\* (월평균 공급액) 출시 초기('16~'19) 255.3억원(16.7%) → '25.下 101억원(3.5%)

#### 2. 개선 방안

- **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**(<sup>가계</sup>사장님 사잇돌)을 신설하여, 개인사업자 특성에 맞게 심사\*
  - \* 사업자번호 연계 매출정보, 사업체 국민연금 납부이력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
  - ※ 추후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(SCB)과의 연계 방안도 검토
- ⇒ **성장성·안정성이 있는 중신용 개인사업자에 더 낮은 금리로, 더 높은 한도의 사잇돌대출 공급\*** → **연간 500억원 추가 공급**
  - \* (금리) 선별된 사업자에 합리적 보험료율 제공, (한도) 2천만원 → 3천만원

<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 신설 방안 >

구분	현행	개선
심사 항목	·카드, 연체, 대출 내역 등	·업력, 업종, 매출액 ·자산건전성 등 ·사업자 대안정보
한도	·최대 2천만원	· <b>잠정최대 3천만원</b>
공급액	·연간 약 1,000억원	· <b>예상연간 1,500억원*</b>

\* 은행/상호금융(사잇돌 취급기관) 우선 출시

### 3 사잇돌대출 취급기관 확대 (카드·캐피탈)

- ◇ 여전업권(카드·캐피탈)을 사잇돌대출 취급 기관에 추가
- ⇒ 차주 접근성을 제고해 **최대 약 5천억원 공급 확대**

#### 1. 현황 및 문제점

- 여전업권은 민간중금리대출을 다수 공급 중이나, 사잇돌대출 취급 기관에서 제외

< 사잇돌·민간중금리대출 취급 기관(단위: 억원) >

구분	은행	상호	카드	캐피탈	저은
사잇돌 취급 여부	○	○	X	X	○
'25년 취급액	12,155	88	-	-	17,679
'25년 민간중금리 신규취급액	86,918	7,132	79,281	19,541	85,247

- 이로 인해 차주의 접근성이 제약되고, 여전사의 고객 데이터·신용평가역량을 사잇돌대출 공급에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

#### 2. 개선 방안

- 여전업권의 개인대상 사잇돌대출 II 취급을 허용하여, 연간 최대 약 5천억원의 사잇돌대출 추가 공급

⇒ 취급기관 다양화로 사잇돌대출 접근성을 높이고, 여전사 역량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금리 제공으로 차주의 편익 제고

※ '25년말 기준 사잇돌 I 평균 금리 8.6%, 사잇돌 II 평균금리 12.8%로, 사잇돌대출 취급 기관에 따른 금리 단층이 일부 존재

→ 중신용자 고객 데이터, 신용평가역량을 보유한 여전업권 참여시 8~12% 금리의 사잇돌대출을 적극 공급하여 금리 단층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

### 2. 민간중금리 대출 개선

#### 1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요건 개편

- ◇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산정 방식의 적정성·합리성 제고
- ⇒ 산식 개선시 금리요건 **최대 1.25%p(잠정) 인하** 효과

#### 1. 현황 및 문제점

- 중금리대출 금리요건\*은 조달원가, 신용원가 등으로 구성되나,
  - \* (정의) '민간중금리대출'로 인정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금리 상한 (매반기 고사) (산식) 업권별 대출원가(조달원가+법적비용+업무원가+신용원가) + 가감금리
  - '19년 금리요건 체계화 이후 현재는 조달원가 변동만 반기마다 가감하고 다른 대출원가 변동분은 미반영

#### 2. 개선방안

- ① 조달금리 외 대출원가 변동분도 매년 금리요건에 반영하여 원가 절감노력이 금리 인하에 반영되는 구조 마련
  - ② 대출원가 산정시 예금보험료를 제외\*하고, 신용원가 산식을 합리화하는 등 금리요건 산식의 합리성 제고
    - \* 소 업권은 '22~'25년 법·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대출원가 산정시 예금보험료 제외
- ⇒ 산식 개선 시 금리요건이 **최대 1.25%p(잠정) 인하**되어, 금융기관의 자발적 금리 인하 유도를 통한 차주 이자 부담 경감 기대

< 금리요건 산식 개선(안) >

구분	현행	개선
법적 비용	예금보험료 포함	예금보험료 제외
자본 원가	없음	자기자본비율 × ROE
신용 원가	고정이하여신비율	부도율 × 부도시 손실률

< 개선안에 따른 금리요건 추정 결과\*(26.3분기 기준 예상, 단위: %) >

구분	은행	상호	카드
현행 금리	7.58	9.31	12.50
잠정개선 금리	7.31	8.67	11.86
증감	△0.27	△0.64	△0.64

\* '26년 하반기 금리요건 산출시 추후 변동 가능, \*\* 금리상한 적용 전 15.99%

## 2 민간중금리대출 1·2 분리

- ◇ 금리에 따라 제2금융권 민간중금리대출 분리·인센티브 차등화
  - ⇒ 제2금융권이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이 공급하도록 유도

### 1. 현황 및 문제점

- 중신용자에 적정 금리의 대출 공급을 위해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제도를 운영 중이나,
    - 제2금융권의 경우 여전히 금리수준이 높다는 지적\*이 있어, 보다 낮은 금리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준 필요
- \* 제2금융권 신용대출 평균금리(25.8월, 잔액기준): (저축은행) 15.32%, (여전) 14.80%

### 2. 개선 방안

- 제2금융권에서 현행 금리요건 대비 3%p(잠정) 이상 낮은 금리로 공급된 대출을 가칭중금리대출 1로 분리
  - ⇒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 1에 추가적인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, 금융기관의 자발적 차주 선별 및 금리 인하 노력 유도

< 민간중금리대출 분리 방안 (저축은행 예시) >

구분	현행 (민간중금리대출)	개선	
		중금리대출 1	중금리대출 2
요건	대상 · 신용하위 50%	· 신용하위 50%	· 신용하위 50%
	금리 · 금리요건 이하 * 예) 저은 16.51% 이하	· (금리요건-3%p) 이하 * 예) 저은 12.26% 이하 (잠정)	· (금리요건-3%p~금리요건) * 예) 저은 12.26~15.26% (잠정)
인센티브 방안	· 영업구역*, 예대출** 완화 *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출시 중금리대출 가중치 150% 적용 ** 중금리대출 10% 차감	· 인센티브 추가 제공 * 예)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출시 중금리대출1 200% 적용 예대출 산정시 중금리대출 20% 차감	· 기존과 동일

## 3 규제 인센티브 확대

- ◇ 민간중금리대출에 대한 업권별 규제 인센티브 신설·확대, 가계대출 규제 완화로 자발적인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유도

### 1. 현황 및 문제점

- 현행 민간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아 금융기관의 자발적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유인하는 데 한계

< 업권별 민간중금리 규제 인센티브 현황 >

업권	現 업권별 민간중금리 취급 인센티브(금리 요건 충족시)
저축은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시 중금리대출은 150%로 확대 인정</li> <li>* 영업구역내 개인·중소기업 여신을 총여신 40~50% 이상 유지 필요</li> </ul>
여전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예대출 산정시 민간중금리대출은 10% 제외</li> <li>■ 총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 산정시 중금리대출은 80%로 축소 반영</li> <li>* 총자산 대비 대출자산의 비중을 30% 이하로 유지 필요</li> </ul>
신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비조합원 대출한도 산정시 조합원 대상 중금리대출은 150%로 확대 인정</li> <li>* 신규대출 대비 비조합원 대출을 1/3 이하로 유지 필요</li> </ul>

### 2. 개선 방안

- ① (예대출) 저축은행의 예대출 인센티브를 확대\*하고, 상호금융도 예대출 산정시 민간중금리대출 인센티브 신설(예: 10% 제외)
  - \* 예) 예대출 산정시 신설중금리대출 1은 20% 제외
- ② (한도 규제) 저축은행·여전사의 한도규제 인센티브를 강화\*
  - \* 예) (저은) 영업구역 여신비율 산정시 150% 인정 → 신설중금리대출 1 200% 인정  
(여전) 총자산 비 대출자산 비중 산정시 80% 인정 → 신설중금리대출 1 50% 인정
- ③ (가계대출 규제) 민간중금리대출에 가계대출 규제 인센티브 부여
  - ① 금융회사 총량 관리실적 산정시 민간중금리대출 일부(최대 80%) 제외
  - ② 신용대출 연소득 내 취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민간중금리 상품인 '중·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' 출시

< '중·저신용자 전용 생활안정자금' 개요 >

- ◇ (요건) 신용평점 하위 50% 중·저신용자에 금리요건 이하 대출(다주택자 제외)
- ◇ (금액) 긴급 생활안정자금 용도 소액대출 (1천만원 이하, 차주 단위 합산)
- ◇ (부가조건)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주택구입금지 약정(미이행시 기한이익상실)

## 4 증금리대출 관리체계 개선

◇ 공급실적과 함께 공급목표를 공시하도록 하고, 공시 채널 및 항목을 확대하여 증금리대출 공급의 양적·질적 개선 유도

### 1. 현황 및 문제점

- 현재 민간증금리대출은 신규취급액 총량, 회사별 취급액 등만 사후적으로 공시
  - 제한적인 공시 정보로 정책효과 모니터링이 어렵고, 명확한 공급 목표 부재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이 부족
- 아울러, 각 협회별로 공시가 산재되어 있어 업권간 실적 및 금리체계의 비교·분석이 어려운 상황

### 2. 개선 방안

- 증금리대출 공급 목표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고, 평균금리·잔액 및 신용분위별 공급액 등으로 공시 항목을 세분화
  - ⇒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·공급 확대 유도
- 아울러, 공시 채널을 금융상품통합비교시스템인 「금융상품 한눈에」로 일원화하여 정보 접근성 및 비교 편의성 제고\*
  - \* 추후 금융위·금감원-업권 TF를 통해 증금리대출 공시 개선 방안 마련

< 증금리대출 관리체계 개선 방안 >

구분	현행	개선	기대 효과
공시 내용	· 신규취급액, 금리 구간	· 금리 구간별 취급액 · 공급목표, 잔액 기준 실적	· 성과평가 강화 및 정책 환류 ↑
공시 채널	· 각 협회 홈페이지	· 각 협회 홈페이지 · 「금융상품 한눈에」	· 금융소비자 알권리 강화 · 업권간 비교가능성 ↑
관리 주체	· 각 협회 주도	· 금융위·금감원 주도	· 실적 관리 일관성 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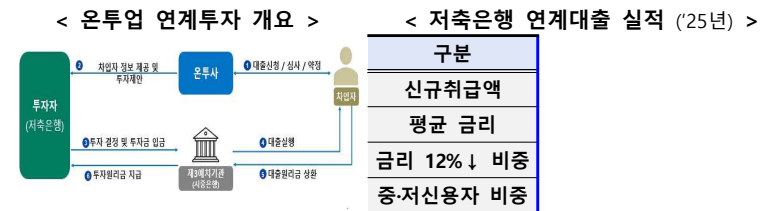
## 5 온투업 연계투자 역할 강화

◇ 온투업 연계투자에 증금리대출 의무비율(50%) 및 인센티브 부여  
⇒ '26년중 민간증금리대출 최대약 5천억원 추가 공급

### 1. 현황

- 저축은행('25.5월~)·농협(전산 구축 중)은 온투업 연계투자\*를 통해 증금리대출 공급 중(혁신금융서비스 지정)

\* 온투업체는 개인신용대출 차주 모집, CSS를 이용한 심사, 사후관리를 수행하고, 저축은행은 온투업체가 모집한 대출에 투자 및 원리금수취권 취득



-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기에 따라 증금리대출 의무비율 및 인센티브가 차등 적용

< 저축은행 온투업 연계투자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 >

- ◇ (CSS 검증) 온투업자는 NICE·KCB등의 CSS 검증 통과 필요
- ◇ (한도) 신용공여 10% 또는 600억원(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시 1천억원) 중 적은 금액\*
- \* ① '26.1월 2차(20개 저축은행) 증금리 관련 부가조건: ① 연계투자 실행액 50% 이상이 민간증금리대출일 것, ② 민간증금리대출 연계투자는 한도소진율 50% 적용
- ② '24.7월 1차(29개 저축은행): 증금리 관련 부가조건 없음
- ◇ (온투업자 연계투자 제한) 온투업자의 개인신용대출 연체율이 15% 초과시 중단
- ◇ (저축은행 연계투자 제한) 저축은행 연계투자 자산 연체율이 15% 초과시 중단

### 2. 향후 계획

-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 변경을 통해 증금리대출 의무비율 및 한도상 인센티브\*를 동일하게 적용
  - \* ① 50% 이상 민간증금리대출 의무, ② 민간증금리대출 연계투자는 한도소진율 50%
- ⇒ 제2금융권과 온투업체 간 협업 확대로 증신용자 대상 적정 금리 대출 공급 확대('26년중 저축은행 약 5천억원 공급 예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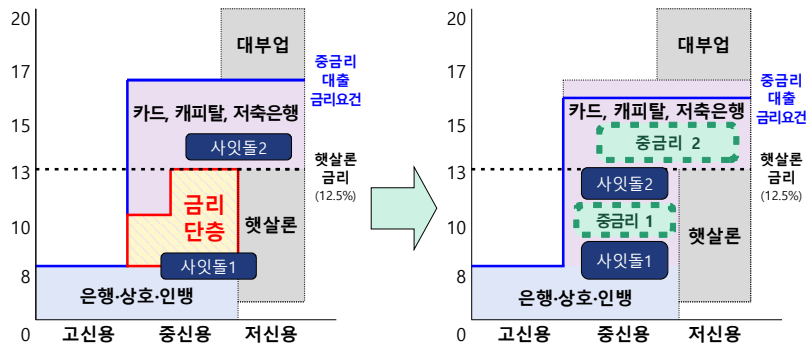
## IV.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 일정(안)

### 1 기대효과

- ◇ 중금리대출 상품 구조 다변화와 금리인하로 **푹김없는 금리 사다리 형성**(금리 단층' 해소)
- ◇ '26년 중금리대출 **31.9조원 공급**(+1.1조원), **최대 5.20%p 금리 인하**

#### 1 (금리 사다리) 8~13%대 중금리대출 확대로 '금리 양극화' 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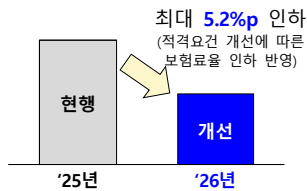
< 제도 개선시 기대 효과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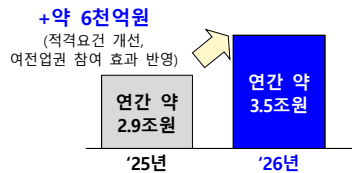
#### 2 (사잇돌) '26년 3.62조원 공급(+0.63조원), 최대 5.2%p 금리 인하

- (개인 사잇돌) **최대 5.2%p 금리 인하**, **최대 약 6천억원 추가 공급**  
→ 더 낮은 금리로 '26년 **개인 사잇돌대출 약 3.5조원 공급**

< 금리 인하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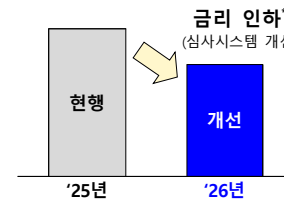


< 공급 확대 >



- (개인사업자 사잇돌) 심사시스템 개선, **500억원 추가 공급**  
→ 더 낮은 금리로 '26년 **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 1,500억원 공급**

< 금리 인하 >



< 공급 확대 >

**+약 500억원**  
(한도 확대, 모델 개선에 따른 승인율 개선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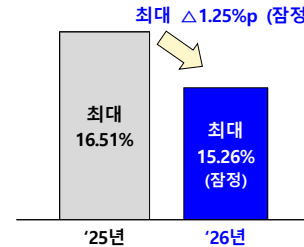
\* 실제 금리 인하 효과는 차주 상환능력 등에 따라 변동 가능

#### 3 (민간중금리) '26년 28.3조원+a 공급(+0.5조원), 최대 1.25%p 금리 인하

- 금리요건 인하, 금리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화  
→ 금융기관의 **자발적인 금리 인하 기대**
- 규제 인센티브 확대, 연계투자 등 공급채널 다각화  
→ 중금리대출 **취급 유인 강화로 공급 확대**

<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인하(예시) >

< 공급 확대 >



**공급 확대**  
① 규제 인센티브 확대,  
② 은투업 연계투자 역할 강화

➔ 경기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신용자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및 **이자 부담 완화(최대 2,250억원) 금리 부담 감경** 기대

\* 중위 신용등급 보험료를 인하분만큼 사잇돌대출 금리가 감소하고, 업권별 금리요건 인하분만큼 민간중금리대출 금리가 인하될 경우 가정

## 2 향후 추진일정

추진방향	세부과제	필요 조치사항	기한
1. 사잇돌대출 개선	적격공급요건 개선	서울보증보험 및 사잇돌 취급금융기관 내규 등 개정	'26.上
	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 신설	관련기관 내규 개정, 서울보증보험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등	'26.下
	사잇돌대출 취급기관 확대	서울보증보험 및 카드.캐피탈사 내규 개정, 전산 개발 등	'26.下
2. 민간중금리대출 제도 개선	민간중금리대출 금리요건 개편	금리요건 고시	'26.上
	민간중금리대출 1·2 분리	업권별 감독규정 개정 (여전, 저축은행)	'26.下
	규제 인센티브 확대	업권별 감독규정 등 개정 (여전, 저축은행, 신탁)	'26.下
		신규 대출상품 출시 (각 업권 자율)	'26.下
	관리체계 개선	실무TF 운영, 전산개발 업무보고서 개정(세칙 등) 등	'26.下
	온투업 연계투자 역할 강화	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 변경	'26.下